

현대시의 정의는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된, 현실과 이상의 괴리'입니다. 따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이  
 가 무엇을 원하는지 즉,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과 현재의 자신이 왜 괴리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  
 게 되죠. 작품과 함께 살펴볼까요?

(가) 「북방에서-정현웅에게」

제목이 항상 우선입니다. 정현웅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시의 배경이 '북방'임을 알 수 있죠. 예로부  
 터 지금의 북한인 북쪽은 추운 곳입니다. 현대시에서 차갑고, 어둡고, 딱딱한 속성이 나오면 대체로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현대시의 정의에 따라 부정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이상과 괴리된 현실'을 의  
 미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화자는 왜 자신이 있는 곳이 '북방인지' 즉, 부정적인 현실인지를 이 시  
 에서 묘사하게 될 겁니다! 맨날 나오는 패턴이니 기억해두자고요.

Keyword. 이상을 나타내는 시어 : 해, 달, 별, 산, 강, 하늘, 무지개, 섬  
 현실을 나타내는 속성 : 차가움, 어두움, 딱딱함, 과도한 인간문명 (빠름, 전파 등)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 왜 떠났나?

㉠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아주 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여나 여진이나 요나 금이나 다 옛날 나라들  
 이름이고, 역사를 아는 사람은 시기적으로 공존  
 하지 않았던 나라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사실들보다는 개인에 집중해봅시다.

화자가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알아야, 어떤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실망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동물들을 배반하고 속였기에 화자가 떠났다는 걸 보니, 화자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서 있는 걸까요... 아직 단서가 없으니 더 읽어봅시다.

나는 그때

㉡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솔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나무들이 슬퍼하고, 오로촌과 솔론은 '나'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눴네요. 이때, 현대  
 시에서 자주 쓰이는 관점을 하나 써봅시다.

↳ 여러 인물들과 자신은 연결함

「국어의 호흡」 Step. 3 자아와 세계

나무가 슬퍼할 수는 없으므로, 나무가 슬프다는 것은 그 나무를 바라보는 나의 슬픔을 돌려서 표현  
 한 것! 김광균의 「추일서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슬픈 사람에게는 모든 풍경이 슬퍼보이죠. 그것  
 처럼 화자가 슬프기에 나무가 자신을 슬퍼하던 것이 보인다고 말한다고 해석해주며 됩니다.

'나'가 그래도 혼자였던 것은 아니었나본데, 어쩌다가 1연에 나오듯이 동물들을 속이고 배반하고  
 그로 인해 결국 떠나게 된 걸까요. 이 긴장감을 유지하며 넘어갑시다.

나는 그때  
 ㉔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케울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  
 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이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직접적으로**

㉕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드러날**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feat. 고향**

‘나’는 근데, 1연에서는 되게 슬퍼보  
 였던 것과 달리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  
 다. ‘슬픔도 시름도 없이’라고 대놓고  
 나오는 부분에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떠난 김에 낮잠도 잤어요. 1  
 연에 죄책감이 보인 것 같았다는 것은  
 착각이었을까요, 그러던 중에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라는 회상의  
 문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화자가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  
 보며 자신의 상태를 나열할 때는 보통

반성의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즉, 그때 내가 부끄러움을 몰랐다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  
 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네요. 이럴 때 속 넘어가도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는 괜찮지만, 공부  
 를 할 때에는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의 호흡」 Step. 4 대상 치환하기

처음에는 엄청 슬펐는데, 막상 떠날 때가 되니 슬픔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후련하여 낮잠을 자  
 는 상황이 있었을까요? 이성 친구랑 싸우고 헤어져서 헤어진 날은 후련할지언정, 점점 그 친구의  
 공백이 느껴지며 후련함보다는 가중된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수능을 망쳤지만 그래도 1년  
 이 끝나서 후련했음에도, 원하지 않던 대학에 입학해야 되어 점점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여러분께  
 는 그 경험이 없을 테지만요, 제 경험담입니다 π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슬펐다가 후련했다가 또 슬픈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여러  
 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학’입니다.

문학이라는 갈래의 정의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기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  
 록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의 범위 또한 넓어지죠. 한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깊은 이별의 슬  
 픔에서 잠시의 후련함은 폭풍전야임을 작가 백석은 말하고 싶었겠죠. 이런 이해가 있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없이 여러분들도 쉬이 해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

다시 돌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돌비가 깨지고 은금보화가 묻히고 까마귀도 대대손손 대를 이은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후련했던 3연과 달리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접어들어버렸네  
 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후회하며 화자는 반성의 힘으로 ‘태반’으로 돌아갑시다.

Keyword. 태반, 모태 \_ 「국어의 호흡」 Part 2. 고향 편과 성찰 편

태아 때 머무르던 자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본연의 모습을 상징하는 시어를 뜻한다. 원초적, 본  
 연의 자아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의 때가 다 지워져 이상에 가까워짐을 뜻합니다!! 따라서,  
 태반은 ‘고향’으로 생각하면 해석이 쉬워집니다.

이미 해는 높고 달은 파랗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많은 시간이 지나도 사실 해와 달 혼자 났 없이 떠도는데 → **변해버린 장소 = 고향의 상실** 과 바람을 그대로여야 하죠. 이상을 나타내는 시어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화자에게는 해가 높고, 달은 파랗해보이고, 바람은 미친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이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실제 저 자연물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화자의 심정이 저 정도로 현재 부정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네요. 결국 원초적인 모습이 손상된 시선으로 화자는 보고 있으니,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고향이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조상도, 형제도, 친척도, 이웃도 없이, 그리워할 것들 사랑할 것들 우러를 것들도 없이, 내가 자랑할 만한 것 즉 소중한 것들과 나를 이루는 힘이 될 것이 모두 없어졌다네요. ‘고향의 상실’이 드러나고 있죠? 여기서 태반으로 표상된 화자의 마음의 고향이 없어져버렸어요. ‘마음의 고향’은 정신적 기둥이기 때문에 상실의 경우 매우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은 길지만, 짧게 주제를 정리하면,

**“마음의 고향을 저버리며 얻은 짧은 후련함 뒤에 찾아오는 깊은 슬픔”**

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인 24.를 봐볼까요. 문제를 풀 때는 주제로 풀어야 합니다. 평가원에서는 주제로 답을 낸다고 제가 여러 칼럼과 책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작품의 핵심은 **“마음의 고향을 저버리며 얻은 짧은 후련함 뒤에 찾아오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따라서, 후련함 부분에 슬픔을 연결하거나, 그 반대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찾아낸 주제를 바탕으로 정답이 될 선지를 떠올리는 능력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문제 풀이법입니다!

24.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나온 ‘북방’으로 표기된 마음의 고향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을 떠나 화자가 느끼는 슬픔 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에서는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제시하여, 여전히 그리워함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의 시구가 ㉠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상반된 상황~~ **상반되었던 것이 일치??**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후련함 = 슬픔 ??**
- ⑤ ㉠에서 ‘없다’와 그 앞에 열거된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고향의 상실로 인한 깊은 슬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 이 작품에서 백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인간에 대한 이해’인 짧은 후련함 뒤에 찾아오는 깊은 슬픔을 왜곡한 선지가 답으로 나오게 될 수 밖에 없었네요!

이제 (나)를 읽어볼까요.

작품에 주어진 <보기>는 이 작품을 해석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보기>를 읽고 작품을 읽게 되면, 출제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어서 평소에도 <보기>를 활용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 기>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각을 회상한다.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본다.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의 생각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각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회상이 나온다는 것은 현재 시점의 '나'와 과거 시점의 '나'를 구분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물고기에 자신을 투영한다고 했으므로, 화자가 생각한 물고기와 자신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아야겠죠. 위에서 말씀드렸던 '자아와 세계' 관점에 따라, 객관적 대상인 물고기를 화자가 자신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독특하게 바라보는지를 알아내야 하니까요. 왜 화자는 물고기를 보면서도 '시린 기억'을 떠올리게 될 정도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꼈는지 또 찾아봅시다!

겨울 아침 언 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 → 연결의 매개체  
창 하나 생겼다  
물고기네 지붕을 튼 a 살얼음의 창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훤히  
나의 생각 같았다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젖을 갓 댄 어린것들은 ≡ 어린 자신  
찬 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놀고

겨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시어죠.

'창'처럼 무언갈 비출 수 있는 것은 성찰이나 연결의 매개체입니다.

물고기네 방을 내 생각로 보며 이제 화자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고 흩어지고, 어린것들만이 찬 마루에 남겨졌다고 하니, 어린 시절 보살핌보다는 방치에 가까웠을 화자가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물고기를 보고 화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자아와 세계 관점에 따르면, 자신이 슬프기 때문이죠! 객관적 대상을 보고 서술하는 주관적 표현은 항상 주제를 관통함을 기억합니다.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 시린 아이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 **아직도 여운을**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 **못 벗어날**

-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

물속 쌓인 돌이 정말 깊나요?  
 밖에서 화자가 봐도 보일 정도면  
 엄청 얕겠죠. 그런데도 마치 그게  
 깊은 것 마냥 어미들이 궁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고기가 그랬을 리  
 는 없으니 이는 모두 화자의 생각  
 입니다. 따라서 화자를 대입해봅시  
 다. 그게 투영이니까요.

어린 화자를 두고 마치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나를 못 알아보고 궁리하는 듯한 모습. 그러나, 그  
 게 정말로 화자를 방치하는 게 정당화될 정도의 일이었을까요? 진짜 깊지도 않은 물속에서 마치  
 깊은 듯이 행동했다는 점으로부터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보기>에서도 이미  
 화자가 시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으니 이 모든 것은 부당했겠죠. 그 기억이 어른들한테는 사소  
 한 것이어도 화자에게는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되었나봅니다. 아직도 '생가'에 살 듯이 마음에 응어리  
 진 채로 ...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았다는 것은 여전히 화자는 그때의 어린이가 되어 서  
 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네요.

「국어의 호흡」 Step. 4 대상 치환하기

고등학교 때 키우던 앵무새가 있었어요. 조그만 아이가 아니라 엄청 큰 친구였는데, 하교하고 공부  
 한다는 이유로 신다는 이유로 잘 놀아주지 못했죠. 고3 때 결국 20년도 넘는 수명을 누리지 못하  
 고 4살의 나이로 앵무새가 죽어버렸어요. 앵무새는 우울증도 걸리고 자살도 할 수 있는 똑똑한 친  
 구더라고요. 그때 조금만 놀아주었다면.. 이 화자는 마치 제가 길렀던 앵무새처럼 제가 가장 깊은  
 속인 양 급한 궁리하는 양 침대에 누워버림으로써 놀아주지 않았던 어른에게 큰 상처를 받았네요.  
 해설 쓰면서도 보고 싶어지네요..

정리해서, 이 작품의 주제를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된 어린 시절 슬픔은 어른이 되어서도 깊게 남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나오려면, 스스로 방치되었다고 하거나, 방치되어도 안 슬프다거나,  
 이제는 슬픔을 다 잊었다는 등의 내용이 나오겠죠.

25.을 봅시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각을 회상한다.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본다.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의 생각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각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 ①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각을 겹쳐 보고 있군. 물고기네 방 = 생각
- ②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지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화자는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 것으로 표현하였군.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방치함
- ③ ‘젖을 갓 떴 어린것들이 ‘그네끼리 놀고’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생각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어른들 없이 애들끼리 모였던 방치의 기억
- ④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각에서 외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군.~~ **자신을 외면한 이들의 모습** 방치하면서 이를 정당화하는 건 어른들이죠. ‘자신의 모습’이 틀림. 앵무새는 죄가 없어요...
- ⑤ 화자는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각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여, 성년인 자신의 마음속에 유년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상처군요.

(가)와 (나) 연계 문제인 23.을 봅시다. 태반은 마음의 고향을, 생가는 슬픈 어린 시절의 공간이죠.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선지는 하나네요.

23. 태반과 생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각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2번 소외감이라뇨. 고향인 것을. 서러움과 수치심도 다르죠.
- ②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각에서 느꼈던 수치심을 떠올리고 있다. 3번 태반은 돌아오는 공간이에요. 다만 변해버려서 화자는 슬펐죠. 생가는 다시는 못 고치게 이미 상처죠.
- ③ (가)에서 태반은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만남을 기약하는 공간이다. 4번 태반이 그대로면 희망이지만, 상실되어 화자는 슬퍼요. 절망보다
- ④ (가)에서 태반은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화자의 절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5번 생명의 섭리는 주제와 거리가 멀어요. 이런 말은 안 나왔으니깐요.
- ⑤ (가)에서 태반은 생명의 섭리를 지향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생명의 섭리를 거부하는 공간이다.

(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필이라는 갈래의 특성을 봅시다. 아래는 「국어의 호흡」 발췌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산문을 읽어볼 겁니다. 산문 중에서도 이번 (다)는 수필이라는 갈래입니다.

**수필 \_ 자신이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그 경험과 함께 서술하는 문학 산문의 한 갈래**

즉, 이 갈래에서의 핵심은 '1) 무슨 깨달음이며, '2) 그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 무엇인지'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을 때에도, 이 수필이 어떤 깨달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험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며 읽으셔야 문제가 술술 풀릴 겁니다. 또한 이렇게 읽으면, 사족을 다 쳐내고 아주 빠르게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즉, 수필은 화자가 깨달은 내용을 알아내야 해요. 마찬가지로 **자아와 세계**의 관점에 따라 평범해 보일 경험이라도 이 화자가 깨달음을 얻게 해준 그 경험을 같이 체험하면서, 화자에 공감하면 되는 것이에요!! 작품과 함께 살펴봅시다.

이문원 동쪽 늪은 나무가 있는데 적어도 백여 년은 된 것 같다. 그 몸통은 울퉁불퉁 옹이가 졌고 가지는 구불구불 뺨어서 멀찍이서 보면 가파른 산등성이나 성난 파도 같았고 다가가서 보면 둥그스름한 큰 집채 같았다. ⑤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그 기둥이 모두 열두 개이다. 나무 옆에 누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불을 들고 가서 숙직하는 장소이다. 좌우에 책을 쌓아 놓고 교정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따금 나무 곁을 산책하였다. 썩썩 불어오는 긴 바람 소리를 들으며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 아래를 거닐면 몸은 대궐 안 관청에 있어도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홀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다.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묘사

묘사 부분은 일일이 읽으면 시간이 너무 소요돼요.

그래서 화자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만 알아내면 됩니다. 엄청 큰 나무에 사람이 설치한 기둥이 있고, 그 밑에 그들은 서늘해서 홀쩍 벗어난 기분이 든다는 화자. 이 정도만 챙겨가면 아주 훌륭합니다.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전하는 계획**이 있기 마련일세. 풀명자나 배, 굴이나 유자, 사과나 석류 같은 나무들은 열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네.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풀 같은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네. 그래야 말발굽이 짓밟거나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더 손상을 입지 않지. 지금 저 늙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보다 갑절로 뻗어 사방에 드리워도 잘라 낼 줄 모르네. 만약 반쳐 주는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말** 걸세.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익문**.  
 아!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뿔으로 잘라** 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하였다. **이제야 알겠구나.** 늙은 나무를 가축에 견주자면 **뿔을 잘라 내야 온전해질 수 있는 암소와 같다.**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나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 이렇듯이 번성하게 자란 늙은 나무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걸 보고 특이하다고 하니, 바로 여기서 특별한 **깨달음**이 나올 겁니다!!

통념 : 제 스스로 몸을 보전

특별 : 부러졌어야 하는데 기둥이 있기 때문에 백여 년도 더 됨. → 하늘의 뜻이 ‘인간의 손’을 빌려 살게 한 것이군!

아! 하면서 유레카 하고 있죠. 깨달음이 대놓고 나온다는 단서였어요. 그리고 ‘알겠구나’, ‘모른다’와 같은 부분은 필연적으로 **깨달음**과 직결되니 유심히 봐주세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

그 어디에서도 저렇게 번성하게 늙은 나무를 못 보았는데, 사람의 도움으로 저 나무는 잘 사네요. 수필은 이렇게 읽어주고 나서 깨달음을 얻게 해준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해준 경험 : 사람의 도움인 ‘기둥’으로 잘 사는 나무  
 깨달음 : “**혼자보다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삶이구나!**”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여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 ✓ ③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나’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애초에 시의 정의가 ‘비유와 상징을 통한’을 포함해요. 그래서 빗대어 표현한 방식이 아닌 시는 절대 없습니다.

‘나’의 인식이 없는 문학 작품은 없겠죠(‘나’가 없는 작품이 아니지 않는 한). 따라서 3번 선지는 어느 작품을 가져다 놓아도 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절대 정답선지입니다. 이걸 놓쳤다면 기출 분석과 기본기가 부족한 것이니 반성이 필요했습니다.



26.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화자의 불안을 심화하는, ㉡는 글쓴이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
- ② ㉠는 화자의 이상향을 형상화하는, ㉡는 글쓴이의 태도를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③ ㉠는 ㉡와 달리, 화자에게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④ ㉡는 ㉠와 달리,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 회상의 매개체

㉡ : 사람의 도움

불안이 심화되진 않죠. 어릴 때 상처가 남아 있으므로

이상향보다는 괴리고 태도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아니라 상처죠 그냥.

극복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죠.

✓

- ⑤ ㉠와 ㉡는 모두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자아와 세계 그 자체네요. 이 또한 문학이라면 반드시 정답이 되는 선지예요. 일반적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여 새롭게 만드는 것이 문학이데, 어떻게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주관적 표현이 나타나면 반드시 적절할 수밖에 없던 선지입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유난히 본질에 가까운 선지들이 많이 나오네요.

27.은 (다)에 대해 묻는 문제네요. 주제는 서로 도우며 사는 삶이 혼자보다 더 낫다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으려면,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등의 내용이 있겠죠.

27. <보기>의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여러분, 「이문원노종기」는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에 착안한 글입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문원노종기」를 다시 읽어 보려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학 생: \_\_\_\_\_ [A]

선생님: 네, 잘 말했습니다.

계말은

- ①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백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나무를 보살피 주었기 때문입니다.
- ② 글쓴이가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홀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 것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 ③ '풀과 나무'가 '몸을 보전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④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위험을 인간이 '뿔으로 잘라'서 해결해 주는 것은,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⑤ 글쓴이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보다 번성하게 자랐다고 한 것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

저 부분은 풀과 나무가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 살 때의 얘기였죠. 그러므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아니네요.

현대시 세트 끝!

현대소설은 어떤 갈래일까요?

아래는 「국어의 호흡」 현대소설 파트 발췌

\* 김달채는 22수능의 주인공임

### 01. 장면을 나누어라.

# Scene number를 매기면서 각 장면을 한 줄로 요약하라.

### 02. 장면은 크게 인물 · 장면 소개 부분과 본론(사건)이 있다.

선지에서 이 큰 두 개의 축으로 판단하면 순식간에 답이 나올 수 있다.

### 03. 주제는 결국 인물 위주이다.

현대 문학이기에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가 주제이다.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 사람만의 광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선지를 고르자.

### 04. <보기>를 참고하는 것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참고에서는 <보기>의 내용 중 소설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에 나온 말들을 소설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독해하며 지문 왼쪽의 여백에 <보기>에 쓰인 단어들로 요약한다면 3점짜리 <보기> 문제를 항상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다.

### 05. 현대 문학의 본질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김달채는 진짜 권력이라는 이상에 도달하지 못해 굶아버린 현대인의 소시민적 면모를 상징한다. 이런 상징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개인이 주인공이어도 그에게는 그만의 상처 즉,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을 것이다. 무슨 괴리인지가 곧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에 근거하여 이번 모의고사도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 내는 주체적인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보기〉 먼저 읽어봅시다. 이 소설에는 ‘중도적 주인공’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국어의 호흡」 현대소설 파트 첫 지문

기출 문제 중 2022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윤홍길의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에서 소시민과 관련된 〈보기〉가 출제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현대소설 속에서 〈보기〉에서 제시한 소시민적인 특징들을 찾아주어야 했던 것을 잘 일반화하여 학습했었습니다. 〈보기〉에서 만약 구체적인 인물, 상황에 대한 설명이 주어진다면 소설 속에서 이것을 찾아서 적절한 해석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중도적 주인공’이 우선 누구인지에서 출발하여 그 인물이 ‘중도적 주인공’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장면과 그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소설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제자가 〈보기〉를 통해서 제시한 이번 현대소설 세트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동림산업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에게까지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이 있었다.

**[앞부분의 줄거리]**는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작성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설을 읽을 때 다른 부분은 대략적인 사건 파악과 해석을 하면서 빠르게 읽어주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주의 깊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보기〉에서 말하는 ‘집단의 논리’가 아마 ‘사무직 남자 직원들에게까지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임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만을 품은 우리의 ‘중도적 주인공’이 등장할 것까지 생각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 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민도식이 나서서 **협약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소설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해내야 할 1순위 과제는 ‘중도적 주인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민도식’이 ‘중도적 주인공’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합니다. 아직 판단이

정확히 되진 않으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 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민도식이 나서서 **협박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야. ①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 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 아까부터 우릴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뚜름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② 아름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스러운 면모를 나타내는 포인트들을 확인하면서 빠르게 사건들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생산부 공장 복장을 한 사내에게 장상태가 시비를 걸려고 한다' 정도로 말이죠. 현대소설에서는 이렇게 인식만 한다고 해서 점수를 쳐주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가져가자고요.

③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을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애길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을 말씀이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동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갔나 봅니다.”

“오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동림 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 공장입니다. 거기서 잡역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 보게.”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민도식은 준비 위원회와 회의가 어떤 의도로 진행된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의 논리를 수용하여 제복을 착용할 것인지 아니면 강하게 반대할 것인지에 대해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극적 행동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민도식이 아주 높은 확률로 '중도적 주인공'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도식이 '중도적 주인공'

장상태가 권 씨를 화풀이 상대로 삼으려 하면서 동료들에게 눈짓을 보낸다, 정도로 요약해주시면 됩니다.

이 소설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의 관심사는 '중도적 주인공'이지 장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은 출제되더라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가 이 소설의 핵심으로 짚은 부분을 두고 다른 부분을 정답으로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 민도식이 보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상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A]로 뭇  
 생산부 직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여 있으니 슬쩍 28번 문제를 보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고 [A]의 서술 상 특징을 찾는 문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제임을 체크한 후 그 점에 초점을  
 [A]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맞춰 읽으면, 이 부분이 민도식의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관찰과 권 씨에 대한 추측 정도를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이삼십 년은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더 세상을 살아 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 있습니다. 문제를 잠깐 볼까요?  
 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잡역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28.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고 내적 갈등 없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과거 현재 없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 공간적 배경 묘사도 없고,  
 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 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사건을 삽화 형식, 입체적 모두 터무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니없는 선지네요.

다시 지문으로 돌아갑시다.

“짜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잡역 일하고 무슨 상관인 있어서 우리 얘기에 이틀 동안이나 장상태가 계속해서 권 씨에게  
 관심이 갔지?” 시비를 걸지만 카운터를 맞는  
 장면입니다.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 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 장 씨 : 나는 팔이 찢리는 문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투쟁하는데 너넨 옷이 문제구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라고 말하네요. 장상태는 얼굴이 하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양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중략)이 나오면, 장면이 바뀌므로 무엇이 앞선 장면과 달라졌는지 알아채려 해야 합니다.

체육 대회가 열리는 제1 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야!”

© 거둬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를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다. 결국 끝까지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 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콘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 숨이 턱 막혀 울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社歌)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콘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꿈무늬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 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제목 '날개와 수갑'을 보면 아마 옷(제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복은 회사가 강제로 입히는 유니폼으로 회사원들을 획일화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수갑에 비유됩니다. 하지만, 옷은 원래 자유롭게 입으면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날개로 일반적으로 비유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수갑이 된 소설 속 상황을 제목에서 집약해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로만 알지만, 행동으로까지 옮기지 못하는 중도적 인물의 한계”

총각 사원 하나는 제복 때문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민도식과는 대비되는 인물이죠. 민도식은 비판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지만 총각 사원은 행동으로 옮긴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근을 재촉하는 아내에게 그 회사가 아니어도 갈 곳이 많다고 말하는 민도식은 결국 뒤늦게 집을 나섭니다.

결국 사복 차림으로 출근을 한 민도식. 하지만, 그 안에서 제복을 질서정연하게 입은 모습을 보면서 숨이 턱 막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소외감도 느끼고 있죠. 그 소외감과 제복에 대한 반발심 사이에서 사표를 내는 적극적인 반발도 그 무리 안으로 끼어 들어가 동조도 하지 못하는 민도식의 '중도적 주인공'스러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면모만 탁탁 확인해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문 독해 속도가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9. ㉠의 의미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미 끝난 일이야’라는 말로 보아, 남자 사원들 중에 ㉠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험악해진 분위기’로 보아, ㉠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사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말로 보아, 권 씨도 남자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을 마저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총각 사원 하나’에 대한 아내의 반응으로 보아, 아내는 총각 사원이 ㉠ 때문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검정 곤색 일색’으로 보아, 체육 대회에 참석한 전체 사원이 ㉠을 마저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9번. ㉠은 '나머지 절반'으로 문맥에서 파악했을 때 제복을 뜻합니다. 현대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을 파악하는 일이라 했죠. 권 씨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니 옷에 부여된 의미 따위를 신경쓰지 않는 사람이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나오려면 권 씨 역시 옷에 부여된 의미에 연연하는 선지가 나올 겁니다.

권 씨는 제복을 입는 것은 팔이 잘리는 문제에 비해 사소한 문제이고 그것으로 싸우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권 씨가 사무직 사원들의 대화에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다.
- ② ㉢는 장상태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명령하였기 때문에 미스 윤이 드러낸 반응이다.
- ③ ㉣는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여 보인 반응이다.
- ④ ㉤는 전체 사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도열한 모습을 본 민도식에게 나타난 반응이다.
- ⑤ ㉥는 사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이 문제도 결국 민도식이라는 인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오는 것이죠. 민도식은 중도적 인물이에요.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는 못 옮기죠. 따라서 민도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으려면, 머리로도 모르는 바보거나, 행동으로까지 옮겨낸 영웅이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양 극단에 대한 설명이라도 나온다면, 중도적 인물인 민도식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겠네요!

㉥에서의 반응은 억압된 민도식의 상상이지 실제로 사원들이 민도식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죠. 이는 머리로는 알지만, 일반적인 경향을 거스르는 행동으로까지는 옮기지 못하는 장면이었어요. 실제로 **총각사원은** 사복을 입는 애매한 행동이 아니라, 저항의 의미로 사표를 던집니다. 애매하게 사복을 입고 서성이는 민도식은 결국 고민의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는 답을 내리지 못한 민도식의 상상 즉, 민도식의 심리가 압축된 장면이

었습니다. 주관적 표현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 서술한 5번은 적절하지 않겠죠.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 내는 주체적인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아까 서술했다시피 중도적 인물인 민도식에 대해 양 극단의 설명을 갖다 붙이면 틀린 선지가 될 것입니다.

- ① 동료에게 ‘준비 위원회’의 ‘회의’에 담긴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발언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립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②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니,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군.
- ③ 아내에게 ‘큰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립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사복 차림’으로 체육 대회에 가지만 자신을 ‘뽕무니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제1 공장’ 정문 앞에서 ‘붙박여 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민도식은 ‘동립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는 우선 저 장면에서 무관합니다. 또한,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눈짓’이라는 이벤트는, 민도식이 권 씨를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A에 나와 있듯 꽤나 특이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작업 중 사고에 관한 논쟁 및 제복과 관련된 논쟁’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평가원에서 ,(콤마)를 기준으로 각 설명은 맞으나 둘의 연결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장면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권 씨를 만만히 보지 않았던 장면과, 민도식이 제복과 관련한 논쟁에 엮인 장면은 별개였습니다.

나머지 갈래도 시간되면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두 세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